



YRI FOCUS & ISSUE

용인시정연구원

No. 50
2022. 3. 15.



■ 용인 특례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문화도시 비전 실현

- 365일, 시민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트렌드
- 풍요로운 문화특례시 용인을 위한 진단과 비전



용인시정연구원
YONGIN RESEARCH INSTITUTE



YI FOCUS & ISSUE

용인시정연구원

용인 특례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문화도시 비전 실현

문화복지연구부 부속진

■ 요약문 ■

■ 365일, 시민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트렌드

- 위드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트렌드와 시민 삶의 질
- 일상에서의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 풍요로운 문화특례시 용인을 위한 진단과 비전

- 지역문화실태조사로 바라본 용인시 문화진단
- 문화특례시의 과제- 시민, 예술인, 행정의 역할을 통한 문화도시 비전 실현

자치행정

문화복지

재정경제

도시환경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문화

“날마다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현대사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이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시는 2020년 12월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이어, 2021년 6월 「용인시 문화 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동년 12월에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제정으로 단시간에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시민들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물론 용인시민들의 삶에 기초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화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에서부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생산을 위한 지원까지 챙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앞서 소개된 YRI Focus & Issue 제46호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따른 용인시 문화관광 정책진단과 관련 계획, 목표와 비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제는 전국 및 경기도 단위에서, 그리고 타 특례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용인시는 어디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종합지수’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데이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20년 기준 전국 문화종합지수의 영역별 데이터와 지역문화정보현황을 중심으로 용인시 문화예술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의미 있는 일상의 문화예술정책이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구체적 개념과 발전과정, 시민과 문화활동가, 행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용인특례시 문화정책이 문화특례시에 걸맞은 것이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출처: 용인문화재단(<https://www.yicf.or.kr>),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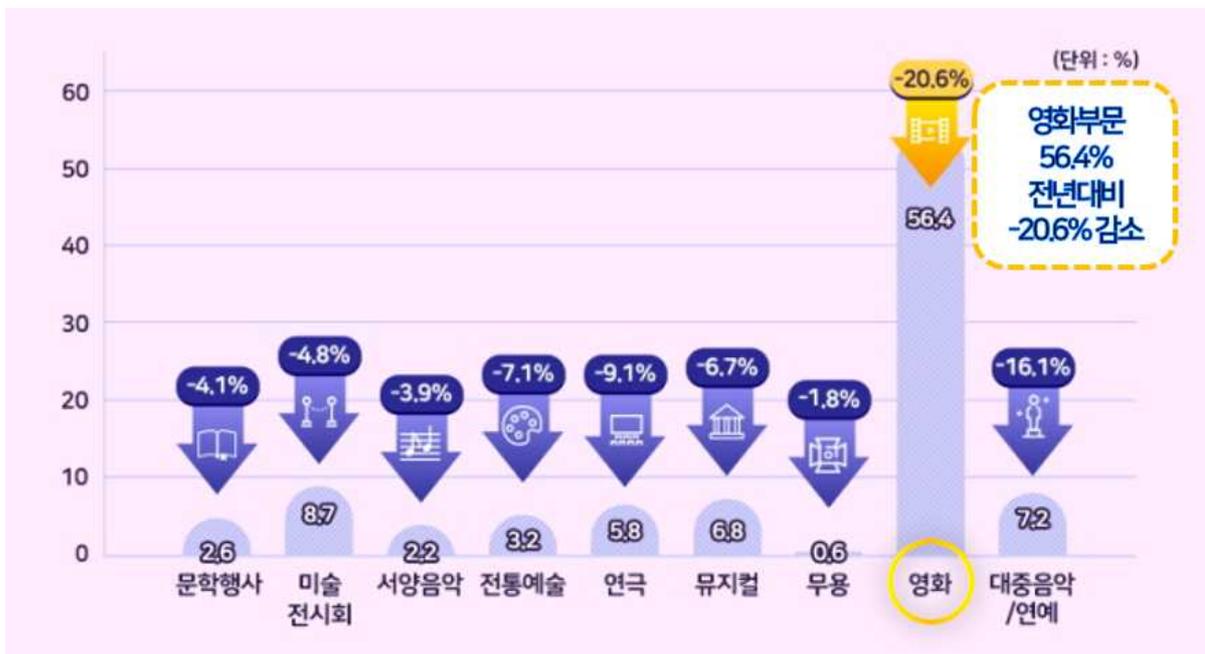
1. 365일, 시민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의 트렌드

■ 위드 코로나 시대, 문화 트렌드와 시민 삶의 질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현황, 소비 트렌드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20년 들어 21.3% 하락하였고, 관람 횟수는 3.2회 감소하였다. 기존에 높은 관람률을 보이던 영화 부문도 2019년 대비 크게 감소(-20.6%)하여 56.4% 수준에 그쳤다. 한편, 문화예술 행사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작품의 질 향상(31.5%)과 관람 비용을 낮게 책정(28.9%)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출처: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KCTI 인포그래픽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2021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2021년 음악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음악 콘텐츠를 이용한 빈도는 코로나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부 활동의 감소로 사람들은 주로 집(59.4%)에서 음악을 감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이후 음악 콘텐츠 이용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2] 음악감상 주 이용 장소



출처: 「2021 음악이용자 실태조사」, KCTI 인포그래픽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경제 및 환경 전반에 있어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다.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역시 치명적인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 의존도가 높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일상 회복에 맞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시적인 예술인 재정 지원 등은 지속 가능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un-contact) 문화예술 활동 증가만으로도 구조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대하며, 기존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고도화·스마트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코로나 시대는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문화예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에는 비대면 교육은 물론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예술의 생태환경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행보가 목격되는 추세다.

[그림 3] 해변 정화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업사이클링(Up-Cycling)



출처: 2021부산문화재단 유튜브, 비치코밍(Beach Combing) 아트展, 문화관광웹진(2021.11)

[그림 4] 용인문화재단 온라인 예술교육



출처: 뉴스시스 2020.7.5., 헤럴드경제 2020.9.3.

■ 일상에서의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

“생활문화의 이해”

최근 어느 지자체나 ‘생활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눈에 띄게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이 활발하다. 생활문화는 흔히 생활 속 문화, 일상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근거하면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문화단체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활문화와 관련된 용인시 규정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4일 제정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다.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생활문화진흥계획수립(제5조)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지원(제6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지원(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표 01]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제5조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시설 설치·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활문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개인 및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광고저널 2020.11.4.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생활문화 관련 사업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2011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성격으로 발전해왔다. 2014년 생활문화센터에 이어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현재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는데, 주요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문화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협력형 생활문화활성화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생활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발굴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시민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등 생활문화와 관련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도 자치구별 자율성에 기반한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생활문화 확장 및 시민의 문화권 보호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법적 문화도시가 아니더라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02] 생활문화 관련 기관 주요 사업

기관명	주요 사업	관련 이미지
지역문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지역문화 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제교류 및 대외홍보 등 	
지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작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사업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지원 지역축제 지원 등 	

출처: 지역문화진흥원(<http://www.rcd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www.arte.or.kr>), 용인문화재단(<https://www.yicf.or.kr>)

[표 03] 서울시 우리동네 생활문화 행사

강북구	송파구	종로구	광진구
강북에서 뭐하니?	생생톡	종로생활 한땀 챌린지	소소한 만남
			

출처: 서울문화재단(<http://www.artandlife.kr/governance/anniversary/>)

2. 풍요로운 문화특례시 용인을 위한 진단과 비전

■ 지역문화 실태조사로 바라본 용인시 문화진단

“지역문화종합지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종합지수(이하 지역문화지수)를 통해 용인시의 지역문화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지수는 지역문화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 전략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창조적인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으로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라 전국의 지역문화지수를 발표한다. 2017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지수를 2019년에, 2020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근거한 결과는 2022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①문화정책, ②문화 자원, ③문화활동, ④문화향유에 따라 총32개 지역문화지표가 적용되며, 특히 2020년 실태조사에 서는 코로나 현황지표가 적용되었다.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지역문화지수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은 인구 천명 당 0.08개로 약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문화관련 예산은 13만1천원으로 28%를 차지하고, 문화관련 조례 제정은 총9건으로 30%, 지역문화 진흥기관은 1.7개로 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 수는 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도 39% 증가했고, 전문인력은 59%, 등록예술인 수는 1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다만 문화향유 부문에서는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연 일수 및 지역축제 예산 감소 등 일부 수치가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지역문화지수는 전북 전주시를 비롯하여 완주군,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특례시 가운데 창원시와 수원시가 포함되어 있고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10위 권에 새로 진입했으며, 용인시와 고양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화활동지수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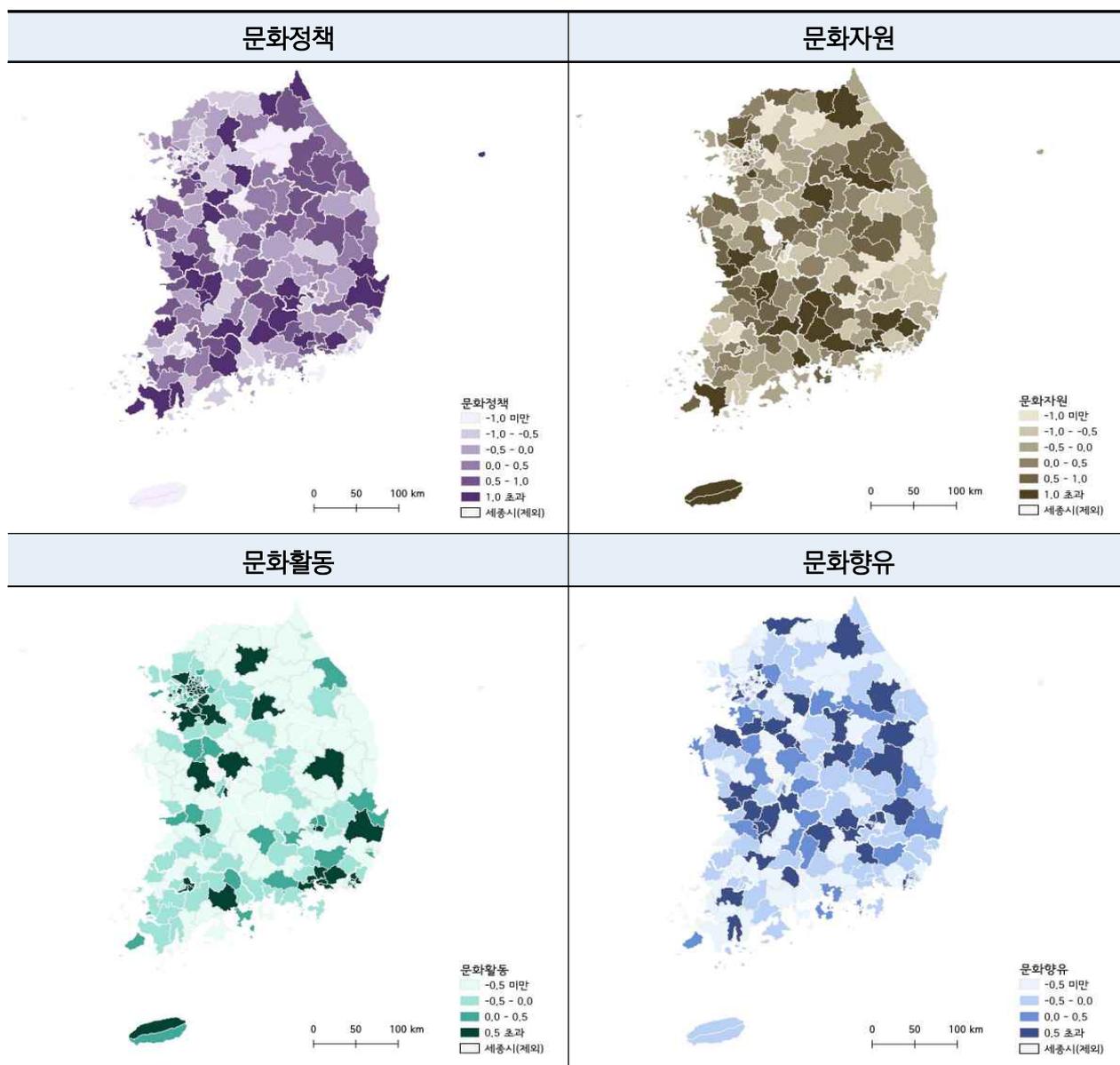
[표 04]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상위 10개 지역	
광역	서울, 부산, 대전, 경북, 전북, 대구, 광주, 강원, 제주, 울산	
기초	시	전주(1), 안동(5), 창원(6) , 성남(10) , 경주, 청주, 부천 , 당진, 익산, 수원
	군	완주(3), 부여(4), 성주(7), 강진(8), 거창, 증평, 구례, 인제, 진도, 서천
	구	종로구(2), 대구북구(9), 대구중구, 성동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달서구, 노원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2.2.14.

주: ()안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10위 지역의 순위이며, 경기도 및 특례시는 굵게 처리함

[표 05]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주요 도시 지역문화지수 결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2.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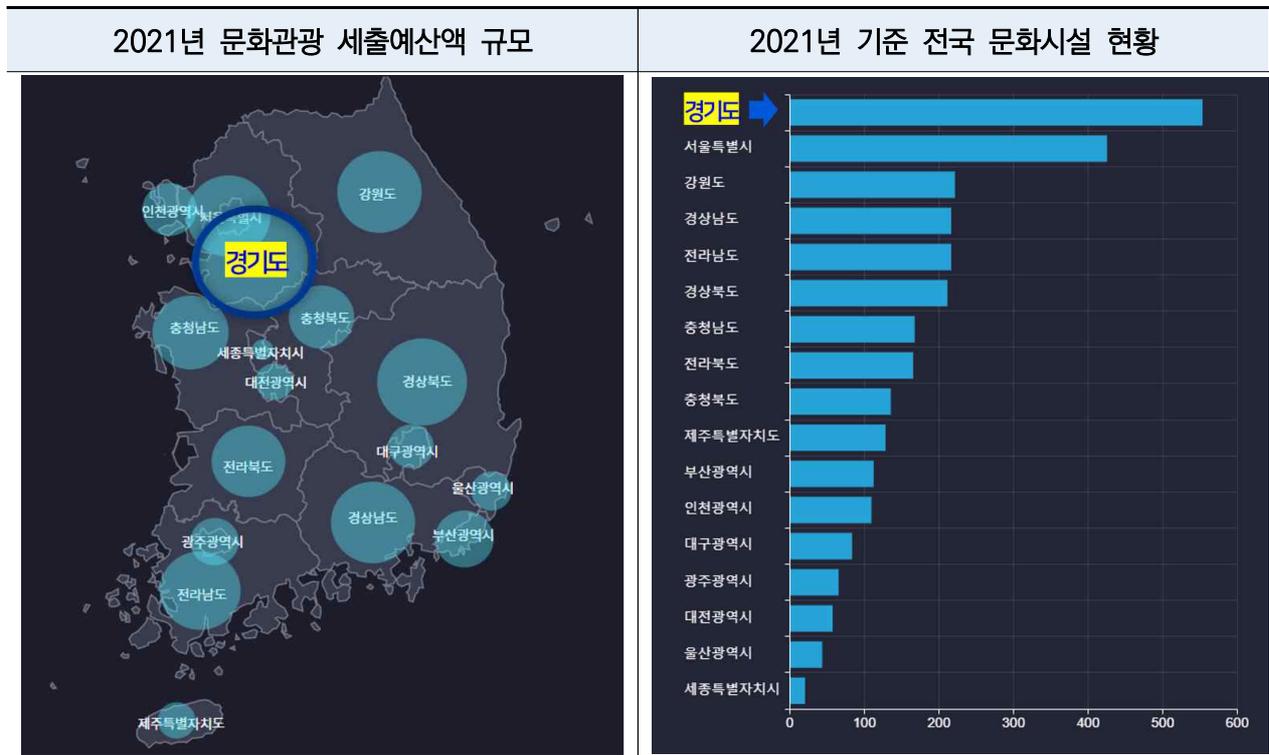
주: 기초자치 단위의 색깔이 진할수록 높은 문화지수이며, 경기도내 시 단위에서는 성남시(4위), 부천시(7위), 수원시(10위)가 우세함

“지역문화통합시스템 데이터로 바라본 용인특례시”

용인시는 2022년 1월 13일을 시작으로 특례시로 출범하였고, 그에 따른 도시 전반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등 경기도 지역의 특례시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지원에 있어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실제 2021년 기준 경기도의 문화관광부문 예산은 36,621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술인 수는 8,303명으로 서울(12,961명) 다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문화예산 (1,235,366백만원) 비율은 약 2.04%로 전국 2.01%보다 다소 높고, 문화기반시설 현황에서나 문화 지수를 구성하는 4개 분류체계 중 문화활동에 있어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06] 2021년 전국 문화관광 세출예산 및 시설현황



출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용인시 문화예술의 위치는 어떤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지역문화 통합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예산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인적자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문화시설 및 문화사업 건수, 문화관련 조례 제정 현황, 문화인력 현황, 예술인 및 법인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비대면 문화사업의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비율은 7.1%로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용인시는 문화예술 관련 경기도 발주기획사업 4건, 비대면문화사업 4건의 실적을 보였고 문화관련 조례 8건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기반시설 수에서는 경기도 타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생활문화시설수는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138개소로 집계

되었다. 한편, 등록예술인수는 총1,941명(2021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준 2,540명)으로 적지 않지만 예술단체수는 한자리에 그쳐 경기도 내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 열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07] 2020년 기준 경기도 주요 지자체 문화관련 사업현황

지역	문화예술 예산비율(총예산)	경기도 기획발주사업	비대면문화사업(예산)
용인시	2.1%(2,226,447,202,000원)	4건	4건(170,440,000원)
수원시	2.2%(2,573,759,868,000원)	23건	7건(20,000,000원)
부천시	7.1%(1,881,655,699,000원)	15건	25건(1,614,027,000원)
성남시	2.8%(2,769,451,350,000원)	12건	13건(27,688,000원)
고양시	2.5%(2,382,593,230,000원)	3건	미집계
안양시	1.9%(1,284,614,859,000원)	7건	8건(211,551,000원)

출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표 08] 2020년 기준 경기도 주요 지자체 문화관련 조례 및 시설현황

지역	문화관련 조례제정 건수	1천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기반시설수	1천명당 생활문화시설수	생활문화시설수
용인시	8	0.02	25개	1.3	138개
수원시	36	0.03	31개	1.5	172개
부천시	20	0.03	22개	1.1	91개
성남시	27	0.02	20개	1.4	128개
고양시	23	0.02	25개	0.9	93개
안양시	15	0.03	15개	1.4	73개

출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표 09] 2020년 기준 경기도 주요 지자체 지역문화 예술단체 현황

지역	총예술단체수	총법인단체수	예술단체 사회적협동조합수	예술단체 임의단체수	문화예술 사회적 법인
용인시	4	1	0	3	3
수원시	13	8	9	5	4
부천시	12	6	0	6	4
성남시	12	2	0	10	6
고양시	14	4	0	10	7
안양시	5	1	0	4	1

출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주: 문화예술단체수는 총법인단체수+예술단체사회적협동조합수+예술단체임의단체수를 포함

[표 10] 2020년 기준 경기도 주요 지자체 문화예술 전문인력 현황

지역	등록예술인수(인구1만명당)	경기도 학예 전문인력	문화관광해설사 수
용인시	1,941명(18.1)	9,900명	29명
수원시	1,917명(16.2)	10,017명	52명
부천시	1,762명(21.5)	9,017명	7명
성남시	1,781명(18.9)	9,109명	7명
고양시	3,321명(30.8)	16,727명	0명(미집계)
안양시	1,085(19.7)	5,515명	8명

출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https://rcis.culture.go.kr>)

주: 학예전문인력은 1,2,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기타지방학예사수, 문화재관리인력수를 포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용인시는 경기도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문화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건수나 예술단체수 등에서 다소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용인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은 문화예술정책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가능한 만큼 필요한 행정지원과 조례제정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용인시 관내 등록예술인수는 인근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2021년 기준 2,540명으로 인구1만명 당 약23명) 관내에서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진단을 통한 용인 문화 특례시의 과제

“시민, 예술인, 행정의 관계 맺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시는 경기도 지역 가운데 부천시(제1차 문화도시), 수원시(제3차 문화도시), 창원시(제4차 예비문화도시) 등 특례시와 도내 경쟁 도시들에 비해 문화정책 및 사업지원 등 전반에 걸쳐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가진 문화예술분야의 경쟁력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활문화의 시작은 생활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공간을 채울 콘텐츠와 스토리, 이 모두를 엮어나갈 사람이 없으면 생활 속 문화는 불가능하다. 용인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2021년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나도 모르게 일상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문화시민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모여 성숙한 문화도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110만 특례시 용인은 규모도 크고 6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문화 활동은 그것을 엮는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이 없었고,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 기획가와 활동가들은 네트워크 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발전의 동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아무리 풀뿌리 문화를 강조하더라도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 전체로 확장하기 어렵고, 시민 전체의 인식과 참여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완성된 문화도시를 위해서 무엇보다 ‘생활문화’가 중요한 이유다.

그동안 용인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문화예술의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에 그친 면이 있다. 2022 용인특례시 원년,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디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월 24일 용인시 관내 생활문화예술단체 협의회 출범은 매우 고무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공정여행마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도도한 나무, 문화협동조합 동백호랑이, 뮤코 협동조합, 봉두 예술원, 예술플랫폼 꿈지락 협동조합, 용인 청춘놀이터 협동조합, 용인 책방사이, 이지아트, 인뮤직 앙상블 협동조합, 협동조합 문화와 함께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용인의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및 발전, 지역주민과 연결한 생활문화거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용인시 생활문화단체 간 상호교류와 연대사업,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생활문화 단체 발굴을 위한 비전을 표명하였다.

물론 용인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용인문화재단, 용인문화원, 용인청소년미래재단 등 행정의 지원도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생활문화예술단체 연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주민주도 마을 축제 기획·운영, 학교 및 주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민과 예술인,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가 시작된 것으로 용인시 생활문화 관련 조례 제정만큼이나 반갑다.

[표 11] 용인시 생활문화예술단체 협의회 출범



출처: 용인신문 2022.2.21., 용인시민신문 2022.3.1.

“시민과 예술인, 문화매개자, 행정의 역할을 통한 문화도시 용인의 비전 실현”

앞서 법정문화도시가 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의 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도는 사업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를 표방하며 생활문화의 중요성을 부각 했고,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남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을 사업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제2차 문화도시에서도 강원도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인천 부평구는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등 이후에도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한 대부분의 문화도시 핵심에는 ‘시민’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용인특례시가 특례시다운, 문화도시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인시민과 예술인, 예술인단체, 그리고 문화매개자와 행정의 협력을 통한 튼튼한 환경조성이 필수조건이 된다. 물론 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와 시민참여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또 못할 이유가 없다. 앞서 발대식을 가진 관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시민 인식 확대와 참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문화특례시는 특례시 권한에 따른 문화와 예술 전반에 대한 사무를 이양하는 것 외에도 지역의 고유성과 특별함에 기초한 시민들이 움직이는 문화도시와 특례시를 지향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생활 문화로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지역성을 살린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문화자족'이 되는 것이다. 문화자족은 시민과 예술인, 행정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강화되며, 확장된다. 따라서 본고는 문화도시 용인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과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시민력 증진을 통하여 누구나 일상 속 문화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살아있는 생활문화로 풍요로운 용인특례시 ■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가치는 자연과, 일상, 즐거움, 연대, 민관협력 등의 키워드로 도출된 바 있다. 즉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도시의 비전은 난개발을 중지하고, 자연녹지를 보존하며, 공원을 만들고, 나(시민)의 일상 속에 즐거움을 주고, 활력이 충만한 문화를 내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스마트 미래도시를 지향하였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를 확산하고, 예술인이나 문화매개자 관점에서는 다양한 중간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기획가와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는 시민과 예술가, 문화매개자가 함께 도시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있다.

살아있는 생활문화로 풍요로운 용인특례시! 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향유(享有)'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용인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여 누릴 때 비로소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 성 명 : 부숙진
- 학 위 : 호텔관광경영학박사
- 직 위 : 문화복지연구부 연구위원
- 전 공 : 문화관광개발 및 마케팅전략수립 등
- 이메일 : rivaboo@yongin.re.kr

원고의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